

주일 예배 순서

- 사순절 제2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33:18-22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36장(새 3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25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밝히 보이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 덩어리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놀려 있는 자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한마당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로마서 10:1-4 인도자
- 찬양(Anthem) 찬양대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자기부인(3) -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

- 봉 헌(offering) 353장(새 317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184장(새 252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친교 후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4. 말씀묵상집 3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헌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7: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혼과 육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겉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혼)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 인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삽시다.

<말씀묵상> 로마서 10:1-4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 사도바울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며,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1-3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심을 나는 무엇을 통해 알고 믿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터에 잔해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 안에 이성과 양심을 그리고 자유의지를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흔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행 17:27).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진선미와 의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구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이것들을 독려하고 권장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시도해 본 사람은 분명한 한계를 느끼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권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에 끌려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롬7:15-23). 그럼에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을 때 더 큰 위험은 찾아옵니다. 바로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스라엘이 자기 의에 빠져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기 전에는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관상으로 누구보다도 완벽해 보이고 철저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철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의 몸에 담당시키시고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이 죄의 책임과 형벌을 받지 않고도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의가 파리를 틀고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 지식이고, 종교적 신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을 죽게 한 장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